

# 한글대장경 인터넷 서비스 추진

## 동국역경원 40년과 미래

동국역경원이 7월 21일로 개원 40주년을 맞이했다. 역경불사를 통한 불교 대중화와 대중을 위해 출판한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은 숯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한글대장경 완간이라는 큰 불사를 성취했다. 현재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 2차 사업으로 한글대장경 전산화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고려대장경과 결합된 '통합대장경 인터넷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동국역경원의 지난 40년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점검해본다.

### ■40년 대역사의 과정

동국역경원은, 1962년 조계종이 한국불교 대중화를 위해 책정한 종단 3대 사업, 즉 도제 양성, 포교, 역경(譯經) 가운데 하나인 역경을 추진하기 위해 탄생했다.

역경을 주요 사업으로 표방한 조계종은 역경원을 종단의 부속기관으로 두려 했으나 역경사업 비용 조달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만다. 그래서 종단은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할 만한 재정적 여유조차 없던 종단은 역경을 동국대 부속기관으로 둘 것을 동국대와 합의한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동국역경원은 64년 7월 21일 대학선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역경 사업의 첫 결실은 65년 6월 30일 발간된 <장아함경>이었다. <장아함경>은 한글대장경 완간을 향한 대장정의 서막이었다. 이후 역경원은 매년 꾸준히 한글대장경을 펴냈고 79년까지 총 101책을 간행한다.

이처럼 순조로워 보이던 역경사업은 80년 11월 초대 원장 윤허 스님의 열반과 함께 접체기를 맞는다. 그러다 93년 월운 스님이

원장에 취임하고 94년부터 4년간 13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이 기간에 116책이 간행됐고, 98-99년에 68책을 추가, <장아함경>이 나온 지 36년만인 2001년에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신집장경음의수합록(新集藏經音義函錄)>을 끝으로 총 318책의 한글대장경이 완간되기에 이른다.

한글대장경 역경사업은 연 번역 인원 4만 3248명, 연 교정 인원 7만5048명, 총 원고지 108만1200매라는 기록을 남긴, 고려대장경 불사에 못지않은 대역사였다.

### ■또다른 시작, 전산화 작업

동국역경원은 후속 사업으로 '한글대장경 개역·전산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에 걸쳐 한글대장경을 재번역해 보완하고 전산화해 318책을 전부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서 동국역경원은 개역 등 번역 관련 업무를, 전자불전연구소는 전산화를 각각 맡고 있다. 4년째인 2004년 7월 현재 <대방광불화엄경>, <금강삼매

## 고려대장경과 통합 2010년까지 전산화

### 재정·전문 역경인력 확보는 여전히 숙제

경>, <중아함경> 등 260여 경을 인터넷으로 서비스(www.tripitaka.or.kr)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최근 한글대장경과 고려대장경을 연동해서 서비스할 필요성이 제기돼 계획을 수정, 지금의 사업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형태인 '통합대장경 인터넷서비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과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고려대장경을 통합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국역경원 최철환 편집부장은 "안전하게 남아 있는 최고(最古)의 대장경인 고려대장경을 한글대장경과 함께 서비스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한국이 불교학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넘어야 할 산 많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 40년간 동국역경원을 괴롭혀왔던 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통합대장경 사업이 속속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동국역경원의 한 해 예산은 10억 내외. 이 가운데 4억원이 국가지원금이다. 나머지 6억은 후원회비, 동국대의 인력과 사무공간 지원, 책 판매대금 등으로 구성된다. 종단의 지원은 미미하다.

이와 같은 재정난은 인력난으로 이어진다. 한글대장경의 오역을 바로잡고, 오래된 번역을 개역하는 전문 역경 인력 확보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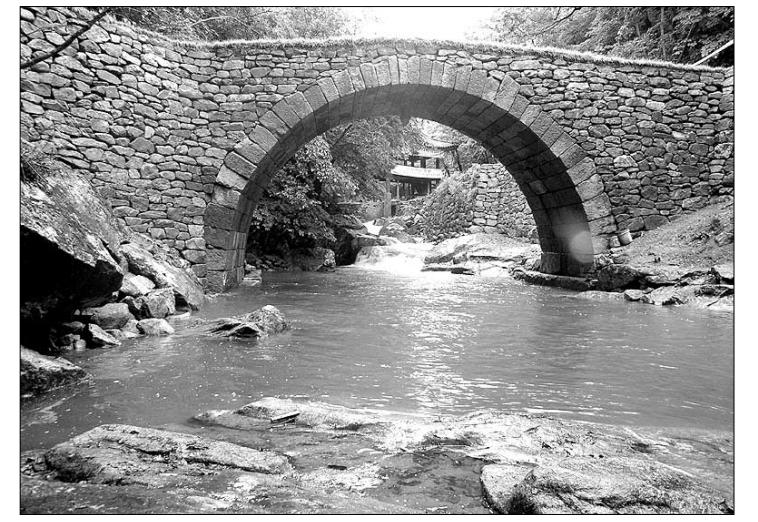
그러나 불교 경전을 제대로 번역해낼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고, 대장경이 포괄하고 있는 주제가 워낙 넓어서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절대적인 인력부족 상황에서 낮은 번역료로 양질의 번역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원고 1매당 번역료가 민족문화추진회의 경우 1만 원인 데 반해 동국역경원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동국역경원 연혁

1962년	조계종 종단 3대 사업으로 역경 사업 추진 결의
1963년 2월 13일	역경위원회(위원장 윤허) 구성
1963년 9월 26일	조계종과 동국대가 동국역경원 설립에 합의
1964년 3월 1일	초대 원장 윤허 스님 취임
1964년 7월 21일	동국역경원 개원
1965년 6월 30일	첫 한글대장경인 <장아함경> 2000부 간행
1979년 3월	제2대 원장 영암 스님 취임, 동국역경사업진흥회
1984년 7월	이사장 자문 설립
1987년 7월	제3대 원장 지은 스님 취임
1993년 11월	제4대 원장 월운 스님 취임, 향후 4년간 13억원 국고지원 국회 통과
1995년 7월 21일	동국역경원 후원회(회장 석주) 발족
2001년 3월	한글대장경 개역전산화 사업 개시
2001년 9월 5일	한글대장경 원간 회합 개최
2002년 3월	한글대장경 32책 인터넷 서비스 개시



새 단장한 선암사 승선교. 사진제공=순천시청

## 새 단장한 선암사 승선교

### 7월 19일 낙성, 주변정리 계획

보물 제 400호 선암사 승선교(昇仙橋) 보수 공사가 완료돼 순천시는 7월 19일에 낙성식을 갖고 2년여의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기초 자연암반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 때문에 문화재청과 순천시가 2002년 11월부터 4억 7000여만 원을 들여 추진한 이 공사는 복원 과정에

서 난항을 겪으며 몇 차례 재공사를 거듭해 많은 우려를 낳기도 했다.

1713년에 선암사 스님 호암화상이 6년 동안의 공사 끝에 완공한 승선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홍예교 중의 하나로, 조계산의 계류를 건너 선암사 경내로 진입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승선교 주변정리 공사는 별도 사업으로 추후에 발주될 예정이다.

## 인각사 보각국사비 재현 바쁜 움직임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을 앞두고 군위군 고로면 인각사(麟角寺) 경내의 보각국사비(普覺國師碑, 보물 제 428호) 재현을 위한 자문회의가 7월 8·9일 양일간 인각사에서 열렸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실장, 금석문연구가 박영돈 씨,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박영돈씨가 30여년간 연구·수집해 복원한 보각국사비 탁본에 대한 학계전문가들의 고증작업이 이뤄졌다. 양일간 진행된 고증작업결과 보각국사비 후면 음기(陰記)에 있는 대선사, 수좌 선사, 입선(入選), 산림(山林), 삼품(三品) 등으로 분류된 일연스님

문도들의 배례부분만 정방상, 김상영 교수가 7월 말까지 재정리하기로 하고 앞면은 탁본대로 재현할 것을 확정했다.

인각사 보각국사비는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 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로써 그의 제자인 청분 스님이 1295년(고려 충렬왕 25)에 세웠다. 비문은 당시의 문장가인 민지(閔漬)가 왕명을 받아 지었고, 글씨는 왕희지체를 집자해 만들었다.

비문의 서체가 수려하여 명성이 자자했으나, 점차 훼손돼 현재는 약간의 수좌 선사, 입선(入選), 산림(山林), 삼품(三品) 등으로 분류된 일연스님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금동반가사유상 특별전 20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불교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인 국보 제78·83호 금동반가사유상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권두) 불교조각실에서 함께 전시된다.

이번 특별공개전시는 박물관 이전에 따른 경복궁 시대 마감을 기념해 기획된 것으로, 이들 두 점의 금동반

가사유상을 하나의 전시 공간에서 함께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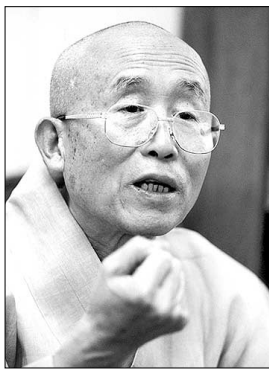
특히 대형불상이 전시됐던 곳인 80평 규모의 불교조각실에서 두 점만 특수조명을 가해 감상의 집중도를 높이고, 관람객을 위한 의자를 배치하는 등 새로운 전시 기법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7월 20일부터 10월 17일까지 90일간 진행된다. (02)2077-9498

## 인터뷰

###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 “읽지 못하는 법보는 구경거리에 불과해요”



“육을 등에 지고 뛰어다니는 말이 있지요. 우리 불교를 보면 꼭 그 격입니다. 고려대장경은 소중한 법보지만 읽지 못한다면 문화재에 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경전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40년간 동국역경원과 고락을 함께 해온 역경원장 월운 스님(봉선사 주시·사진, 동국역경원이 설립된 해부터 줄곧 역경 사업에 참여해

왔고, 1993년에는 원장에 취임, 한글대장경을 완간해낸 역경사의 산 증인이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역경사업을 이끌어야 했던 지난 세월은 평탄치 않았다. “후원회도 조직하고, 책 판매에 주력해보기도 했지만 재정적

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면서 “원장이 된 후로는 늘 불안 속에 산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역경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경전을 읽으면서 발심하고, 불교교리 또한 경전에 토대해 발전하기 마련인데 경전을 번역해놓지 않으면 한글세대들이 어찌 발심하고 불교는 또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고 스님은 반문한다.

이제 스님의 걱정은 동국역경원이 추진 중인 ‘통합대장경 인터넷 서비스 사업’이다. 정부지원을 받는다 해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스님은 “통합대장경 사업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대장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집마다 법보를 모시는 셈이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최봉수(동국대학교수)·주명철(동국대학교수)
	·불교상당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최종석(금강대학교수)·박 중(동산불교대학교수)·정병조(동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한국불교사·유사사상·정토사상	·김상현(동국대학교수)·김상영(승가대학교수)·묘주스님(동국대학교수)·차차석(동국대학교수)
	·법화사상·반야사상·회엄사상	·암도스님(전포교원장)·권기중(동국대학교수)·정영스님(승가대학교수)·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불교학과(200명) (영구반·주선반·동선반) (100명 50명 50명) ·다도학과(50명) ·불교미술학과(30명) ·불교한문학과(50명) ·불교경제학과(50명)	· 불교를 전공 · 입학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6월 20일~ 2004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경제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4년 8월 7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경제학과 : 2004년 9월 7, 8, 9일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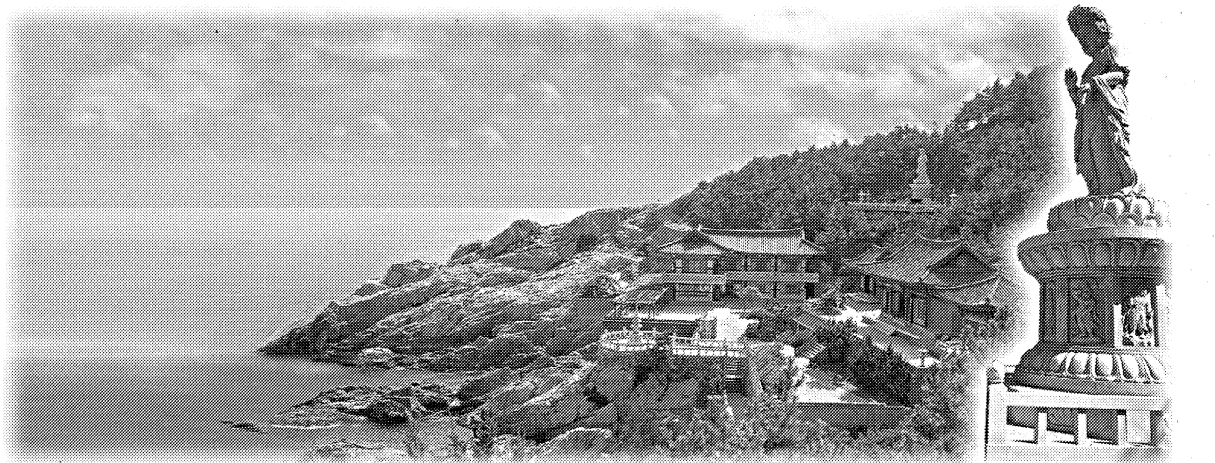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서울: 보현각 (조계사역) 02) 733-0333 ·부산: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대구: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대전: 보문서점 042) 257-0161 ·광주: 불일서점 062) 232-7542 ·제주: 예전 수모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연맹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